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9호 [루게 제24772호] 주제103(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황병서 동지, 현영철 동지, 리영길 동지, 김정각 동지, 서홍찬 동지, 박영식 동지, 럽철성 동지, 조경철 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역사적인 서한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셨으며 오늘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령적인 서한에서 지난 기간 인민군대의 후방일군들이 군인생활개선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다고 하시면서 자기들에게 미덥고미더운 우리 당의 영원한 군수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최고사령관과 마음도 뜻도 함께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인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후방일군들의 수고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14년을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 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후방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대회참가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후방사업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후방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후방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후방일군들이 항일유격대 군수관들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군인들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 참된 동지가 되어 병사사랑의 길을 꾸준히 이어나감으로써 사랑하는 우리의 병사들에게 하루빨리 더 좋고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돌격전을 벌려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군인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걸음걸음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서면 걸음걸음 풀어나감으로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과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심심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시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에게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녀사께서 정성들인 추모화환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온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녀사께서 3년전 국상때 아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국방위원장동지의 명전에 조의를 표시한데 이어 3년상에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온것은 국방위원장동지에 대한 고결한 의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께서는 생전에 녀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온데 대해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숭고한 통일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속원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다음해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 정 은

주제 103(2014)년 12월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선생에게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회장선생이 정성껏 준비한 추모화환과 심심한 애도의 조의문을 보내온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이 청천벽력의 국상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선생은 국방위원장동지의 명전을 찾아 조의를 표시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번 3년상에 지성어린 추모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음으로써 우리 국방위원장동지와 정주영 전 명예회장, 정몽헌 전 회장들과 맺은 깊은 인연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가려는 마음을 뜨겁게 표시하였습니다.
정주영, 정몽헌선생들이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애국적소행을 온 겨레는 잊지 않을것입니다.
현정은회장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회장선생이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은

주제 103(2014)년 12월 18일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몽골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김정일화전시회가 15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정일화

들로 하여 전시회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전시회에는 몽골민족민주당, 몽골김정일화협회, 몽골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경의를 드린다.
한추위속에서도 김정일화가

몽골땅에 반발한 것은 김정일령도자를 흠모하는 몽골인민의 숭고한 마음이 이 불멸의 꽃에 어려있기때문이다.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선을 강위력한 나라로 건설하신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몽골조선친선협회 지도리사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정치, 군사적태도우에서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그이께 충정다해가는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 절세의 애국자

날과 날이 승엄히 흐르는 잊지 못할 12월에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최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인류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전문과 편지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표명하고있다.
네팔공산당(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서거는 인류사주위위의 가장 큰 손실이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발전시키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과 불멸의 업적은 내팔인민을 비롯한 진보적인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김정일동지와 같은 신최고사령관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전 소련국방상은 이렇게 계속 하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드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시키신 천재적이며 로숙한 령도자이시었다.
김정일동지는 모든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대로이신 김정일동지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열렬한 애국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생애와 혁명업적은 오늘날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고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안겨주신 자주의 신념이 있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사회주의와 존엄을 수호할수 있었다. 김정일동지의 존함은 조선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승리의 상징이며 그의 영상은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지휘부에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지휘부에 높이 모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태양의 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승고한 정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식이 24일에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전투대오,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자!》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광영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공군, 로동적위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제양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나뉘고있었다.

제막식에는 황병사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대련합부대 장병들, 종업원들, 군인가족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인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맥동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쏘아 박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자주길, 선군길, 사회주의길,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사, 제자답게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편철하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모든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태양도, 우리모두의 참된 삶도 있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련단심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이 하였다.

제막포가 벗겨지자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찬란한 빛을 뿌리였다.

순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끓여넘치는 다함없는 그리움과 고결한 충정심의 분출인양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명을 진감하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의공동명의와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련합부대의 각급 부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군력강화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편전폐송의 개가를 높이 울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과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력사의 날인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그토록 바라고바라던 념원이 성취된 이 시각 우리 모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며 부대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장

사랑과 정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련합부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초소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곳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부대장병들을 찾고 또 찾으시어 싸움준비를 우리 식으로 완성할수 있는 작전전술적명안들을 가르쳐주시고 초소들과 구분대들의 전기, 식생활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최전방초소를 찾으시어 병사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날에도 이곳 부대에 가보아야 하겠다고 몇번이고 외우시며 부대장병들을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정은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병사들에게 천어비이사람을 배풀어주시고 전진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부대를 강위력한 무적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려는 부대장병들의 간절한 념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훌륭히 형상하였으며 부대안의 장병들, 수많은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군인가족들, 인민들은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티없이 밝고 깨끗한 지성을 바치였다.

연설자는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승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준엄한 전회의 나날 몸소 대련합부대를 조직해주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을 지휘성원들로 파견해주시였으며 부대를 그 어떤 강적과 맞서 싸워 승리만을 떨치는 일당백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총포탄이 우박치는 최전선에 위치한 부대지휘부를 찾으신 그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수십차례나 부대를 찾아주시면서 전투력강화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병실의 수수한 침대의 자애로이 병사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천어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4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혁명투쟁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례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료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투쟁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주시고 조선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제위원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울음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송자와 전통차, 배, 별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의 건국사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여 나가며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끊없이 흘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경모의 정 표시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각지에서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으로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군중들의 물결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끊없이 흘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한 빛나는 년대기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홍모의 물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종합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끊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는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2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최룡해동지, 현영철동지, 김평해동지, 오수용동지와 내각부총리들,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인민무력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기관,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평양시내 당, 정

권기관, 공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땀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라!》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고귀한 삶을 빛내이시었으며 억년 드높지 않은 백두산대국의 명백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목상하

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내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결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한편 이날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만백민족민주조선혁명명도 부 대표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회령고향집을 방문, 각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뜨거운 동지애를 적극 따라배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일이 끝난 다음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해방동속 등 청진시안의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았다.

24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회령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오산덕기슭의 추녀났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어머니께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열렬한 혁명가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과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회령혁명사적관과 망양나무터를 돌아보았다.

이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진행된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모임에서는 어머니께서 마련하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메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선군시대 조선녀성들의 힘찬 맹세가 울려나왔다.

함경북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

해방의 대사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해 여러차례 나오시어 정치군사활동을 벌리신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들은 상단산림시비밀근거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장군께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절세위인들을 정중환구호문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자강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광명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 방침을 받들고 백두산내장군께서 인선지구 나오시어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에 새기었다.

어머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직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지도하신 투쟁봉투머리의 귀틀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백두산내장군께서 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심을 심어주신 진홍야학방과 로동자들을 만일 투쟁에로 이끌어주시던 객주정, 녀성들을 나라찾는 싸움에로 불러일으키신 물레방아간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은 함경남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전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대동야학과 구호나무 등을 돌아보면서 일선의 위업을 무릅쓰고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정속에 되새기었다.

신라혁명사적지를 찾은 광강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백두산내장군께서 국내 지하공작의 나날 혁명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하신 광산사적관, 석전야학복합을 비롯한 여러곳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전국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지도하신 투쟁봉투머리의 귀틀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정결히 응수고수하며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 위하여 억세척 싸워나갈 철성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각지에서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7돐에 즈음하여 24일 김정숙군, 회령시, 김정숙해군대학, 김정숙종합관학교에 모신 어머니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진정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

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기관,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평양시내 당, 정

권기관, 공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고귀한 삶을 빛내이시었으며 억년 드높지 않은 백두산대국의 명백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목상하

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내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결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한편 이날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만백민족민주조선혁명명도 부 대표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들로

12월 24일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에 즈음한 경축공연이 24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결높이 올해를 부강조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여온 크나큰 공지와 자랑스레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쁨이 공연장소마다에 차넘치고있었다.

수도 평양의 극장에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음악회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진행하였다.

관현악 《장군님 생각》, 《애곡》, 《장군님 배마타고 달리신다》, 《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등의 곡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 강행군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시 백두산내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장중고도 서정적인 음악선율이 담겨 높이

창송하였다.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의 종합교향악연이 평양교향악단 무대에 펼쳐졌다.

제치있는 기교와 기백넘친 몸동으로 신비한 조화를 이룬 공연은 명절에 맞이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광명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들 비롯한 각지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공연들에서는 《정일봉의 우뢰소리》, 《선군을 노래하며》,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니》,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 《경애를 받으시라》,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으며 또한 한민족의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태양민족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공연들은 천출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찬란한 미래를 밝히게 하였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24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생애를 어려웠던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찬란한 민족의 화광과 환희가 공연장소에 차넘쳤다.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반체민주민주조선 평양지구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부부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위대한 선군태양을 우러러 버치는 찬란한 민족의 분출을 일인 합창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으로 시작한 공연무대에는 남성3중창 《장군님은 별재산의 아들》, 남성독창과 무용 《붉은 철령》, 녀성3중창 《그리워》, 가야금병창과 남성방창 《비날론 삼천리》,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났소》, 혼성6중창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비연2중창과 남성중창 《전선행렬차》, 관현악과 합창 《혁명군의 노래》, 남성5중창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투쟁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수령의 령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법칙을 따라 승승장구하여온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영광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장군님의 명도는 이 땅속에 강성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질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절감하면서 관람자들은 대를 이어 최고사령관부, 장군부를 누리는 크나큰 행운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백승의 선군명도사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지는 무대에 올려진 녀성6중창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은 태양의 해발로 영생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해주었다.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생의 참뜻을 배우며 위대한 장군님의 총신전사, 제자들로 자라난 인민군 군인들의 공지와 광명을 반영한 노래연주 《병사의 군공메달》, 《달해누리 병사의 사랑음》, 《조명들은 나를 보고 퍼올라주세요》,

《혼련 또 혼련》 등은 공연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 힘차게 울려갈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신념의 노래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두의 대업을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정신과 불타는 맹세를 구가한 공연은 합창 《혁명투쟁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로 끝났다.

사상예술성이 높고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4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탑, 개신교문화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조선의 장군》의 장엄한 노래 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속에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령사의 준엄한 시련과 풍파를 헤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최세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라》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키나갔다.

얼굴에 넘쳐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가는 무도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세계가 일제히 앞지 못하는 위대한 선군혁명명도실록을 이 땅위에 새겨가신 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백두산내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보위하는 건전건국의 성세, 방패가 될 의지를 가다듬으며 춤물결을 이어갔다.

《월명야애 사과바다》, 《먼저 찾아오》 등 흥겨운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도회장들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

되었다.

무도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 온것처럼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파시 해나갈것을 다짐고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온 한 해 남녘 땅을 진감시킨 위인 칭송의 메아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 있다.》**

주제 103(2014)년이 저물어간다. 이 한해를 마감하며 사람들은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보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강한 자주적합에 대한 높이는 자부심과 변명할 때에 대한 끝없는 신심이 차남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비참한 굴종과 예측의 운명에 대한 한탄과 허무한 앞날에 대한 비판의 탄압소리가 높아갔다. 한미더로 말하여 주체로 빛나고 인격으로 따사로우며 선군으로

영원한 태양의 역사

기쁨의 추억은 벌써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추억은 의연히 슬픔이라는 말이 있다. 3년전 남녘겨레들은 하늘처럼 맑고 따스던 위대한 장군님을 북녘인민들과 함께 피눈물 속에 영결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비애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생활의 시련에서 굳어진 믿음만이 그 어떤 폭풍우나 세월의 흐름에도 끄떡하지 않고 영원한 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 리십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진리가 확고되고 선군조선의 만년토대가 다져지는 우리 공화국의 번창 현실을 목격하며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파도가 더욱더 세차게 일렁였다. 올해에 남조선의 여러 출판물들과 인터넷에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그의 불멸의 업적을 찬찬히 글들이 글썽히 늘어난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과 선군절 등 주요계기들에 남조선인민들은 애독적인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없이 실려왔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정치를 실시하여 북을 핵, 미사일, 위성 등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만드셨**

강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사대와 맥과, 반인민적악당이 살판치는 썩어빠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해에 북과 남에 펼쳐진 판이한 현실은 절세의 위인을 모셔야 나라가 인민의 삶도 행복하고 풍요해진다라는 진리를 재삼 확증해주었다. 하기에 남녘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어버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슴에 품고 호르고 또 호렀다. 너무나도 당연한 민심의 흐름이었고 력사의 필연이었다.

다. **《생전에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굵이 굵이 감도는 가파로운 벼랑길을 올라가 최전방간사소를 자주 시찰하곤 하시었다.》** 등 장군님의 선군업적을 회고하는 각종의 가슴뜨거운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싸우면 언제나 이긴다는 태연자약하고 여유자작한 배짱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을 제압하고 화를 복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선군정치의 명상,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임을 시작하신 50년 후 여러 계기들에 진행된 정국행사소식을 일찍이 보며 따라가면서 신속히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이 행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하여 빛나게 계승됨으로써 장군님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 무궁도록 이어질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통일노력》, 《민중의 소리》** 등 수많은 인터넷출판물들은 이면위원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사랑의 편지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정열을 찬양하는 글들이 차고넘쳐있다. 당당한 피피페당은 **《싸이버세상은 종북바다》**라고 아우성쳤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까지 깊은 관심을 보여준 김정일국방위원장**

같은 평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아전렬차에서 순직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영생하신다.》** 그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뜻을 표시한 사람들이 어찌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뿐인가.

선군은 평화의 통일

이해에도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 평온하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끊임없는 복원전쟁소동과 오뉴월 개공같은 체제통일망상으로 성차지 않아 온통 남측투성이인 **《인권》** **《모략음모까지 벌여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암살해볼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원수님들은 감히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핏물으며 필사적으로 말악하였다. 하여 온 한해 어느 한시도 북침전쟁연습의 대포성이 멎은적 없었고 대결당시자들의 터무니없는 악담이 그칠줄 몰랐다. 협박의 상황은 조선반도의 정세기류를 급속히 대결로 몰아갔다. 하지만 절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강철의 선군명장의 위구랄고는 불요령에 무모한 헛손질을 하며 미제날뛰던 미제와 피괴들은 불맛은 시라소니풀이 되고말았다.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효이며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썩어라라는 말이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강화발전 시켜주시고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더욱더 백두산대국 다져주시는 불멸의 선군총대는 원수들의 무모한 기도를 산산이 깨버리었다. 올해 4월 초 은 남조선땅은 커다란 총격으로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련합군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언설을 하신것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즉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연합뉴스》, 《KBS》**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결의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자료를 모시고 **《김정은제1위원장 총대 최후 승리를 이룩할것을 표명》**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강계의 파문은 물론 컸다. 선군이 물어온 충격적인 해일은

이렇듯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정성과 간절한 그리움속에 이해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아전렬차에서 순직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영생하신다.》** 그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뜻을 표시한 사람들이 어찌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뿐인가.

이렇듯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정성과 간절한 그리움속에 이해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아전렬차에서 순직하시었다.

이해에도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 평온하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끊임없는 복원전쟁소동과 오뉴월 개공같은 체제통일망상으로 성차지 않아 온통 남측투성이인 **《인권》** **《모략음모까지 벌여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암살해볼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원수님들은 감히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핏물으며 필사적으로 말악하였다. 하여 온 한해 어느 한시도 북침전쟁연습의 대포성이 멎은적 없었고 대결당시자들의 터무니없는 악담이 그칠줄 몰랐다. 협박의 상황은 조선반도의 정세기류를 급속히 대결로 몰아갔다. 하지만 절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강철의 선군명장의 위구랄고는 불요령에 무모한 헛손질을 하며 미제날뛰던 미제와 피괴들은 불맛은 시라소니풀이 되고말았다.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효이며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썩어라라는 말이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강화발전 시켜주시고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더욱더 백두산대국 다져주시는 불멸의 선군총대는 원수들의 무모한 기도를 산산이 깨버리었다. 올해 4월 초 은 남조선땅은 커다란 총격으로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련합군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언설을 하신것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즉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연합뉴스》, 《KBS》**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결의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자료를 모시고 **《김정은제1위원장 총대 최후 승리를 이룩할것을 표명》**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강계의 파문은 물론 컸다. 선군이 물어온 충격적인 해일은

군사적항복중 망자책임을 요구하며 쿨럭쿨럭하는 형국. **《월간들을 놀래우는 큰 사변들을 련이여가시는 북핵고지도의 정치적지도력과 결단성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 반복을 금지 못하였다. 남조선의 정세 평론가들도 최고지도자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수시로 군사훈련장을 찾아 훈련과정을 직접 지도하는 사제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군지도활동에 미군지휘부가 총격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하였다. 피피페당가지도 **《조선반도의 운명은 북지도자의 주머니속에서 들어가는셈이다.》** **《김정은제1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강력히 맞서고있다.》** 하였다. 불안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올해에 들어와 련속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자주적존엄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통괄하려는 세력들을 용납하지

신심속에 그러보는 민족번영의 개일

올해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펼쳐진 한해 현실이 사람들을 놀래켰다. 남녘에서는 자본중시, 인간생명경시 등 피피당국의 반인민적악당이 오수백명의 어린 목숨들이 아깝게 숨진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북녘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석에 총대원군제소년단원영호 총공심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선군정치의 조를 이루는 광경은 온 한해동안 끊임없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문불휴의 정력적인 평도와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 날아남았다 펼쳐지는 인화적, 후대사범의 대화는 평행동행같은 피피정권들에 대한 울분으로 치밀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은 선진지도자들의 련상과 같은 사랑이 한결 강하다.》** **《어린이들을 겨냥하고 스다들은 북지도자의 어린이사람은 진정성이 없었고요 자연스레다.》** **《가는 곳마다서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후대사랑이 한결 강하다.》** **《우리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내였다

우리의 해당 기관이 지난 11월말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 마상호(남자 52살)를 탄핵하였다. 마상호는 불법입국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남쪽에서 자기를 정선병자로만 치부하며 자유를 구속하므로 공화국에서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 진행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가 15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킬때 대한 문제제기의 토의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상해협조기구회의 발전은행과 발전기금창설

자 연 교 해

— 인도네시아의 북부말루주에서 18일 가말라파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화산재가 2 000m 높이까지 뿜어올랐다. 화산분출로 9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화구로부터 3.5km범위의 지역이 소격지

반부차이 심화

카나다에서 반부차이 심화되고있다. 16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유층의 20%가 전체 사회부부의 67.4%를 독차지하고있는 반면에 빈곤층의 20%는 아무것도 없이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고 한다.

안팎으로 저주와 규함을 받고있는 미국

— 로씨야의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세이 루카시비치가 17일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전개행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로씨야로부터 2015년에 로씨야아령토에 미사일방위체계요소들인 요격미사일들을 전개할것을 기대로 미국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유럽의 동남부지역을 군사화하려는 미국의 꾀동은 군사화 유럽의 안전과 안정에 배치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경찰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최근 몇달사이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난 7월 17일 뉴욕에서 흑인 청년가 카너를 목졸라죽인 사건, 지난 8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쏘죽인 사건, 지난 11월 22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2살 난 흑인소년이 총에 맞아죽은 사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장한다는 경찰이 오히려 민중적 억압과 잔인성이 찬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자의에 의한 감행되고있는것이며 미행정부가 그러한 행위들의 재발방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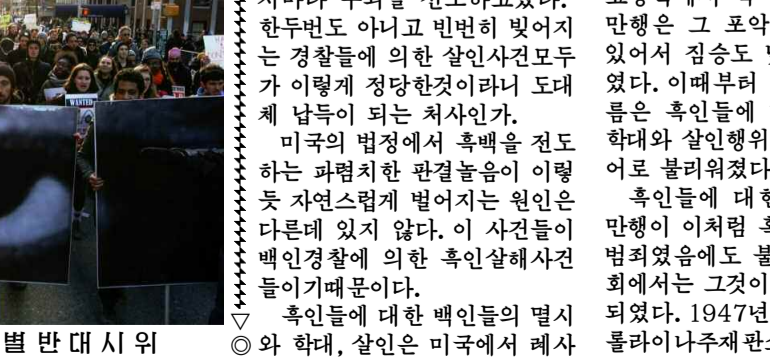
거연히 솟아오른 자주성의 성새

여러 나라 군사대표단 단장들이 칭송

부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향적 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키고 인류 자주위업수행을 추동하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임에 조신의 군대와 인민은 난관을 이겨내며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의 성새로 거연히 솟아오른 우간다군사대표단 단장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제재책동을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시위



파키스탄의 력사유적

《살인허가증》이 있는 린치왕국

로운 일이다. 린치왕국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력사가 그것을 명목으로 보여주고있다. 린치는 미국고유의 대량사살과도 말할수 없다. 린치라는 말은 미국의 농장주이며 극단한 인종주의자인 찰스 린치판자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흑인들을 자기에게 부종하는 노예로, 말하는 짐승으로 여긴 이자는 수많은 흑인들의 피땀을 짜내면서 가혹하게 학대하였을뿐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 방법으로 무참히 죽이곤 하였다. 흑인들을 목매달아죽이고 나무문에서 불태워죽이는가 하면 총으로 쏘죽이고 갈로도 투여어 죽였으며 기계안에서 들어온 몸의 뼈를 부스러뜨려 고추속에 죽이는 등 린치의 만행은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있어서 짐승도 낫을 붙일 정도였다. 이때부터 린치판자의 이름은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학대와 살인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로 불리워졌다. 흑인들에 대한 찰스 린치의 만행이 이처럼 흑인인권을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는 그것이 공공연히 묵인되었다. 1947년 5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재판소는 린치는 법